**[온 가족이 함께 큐티하는 습관을 길러요]**

아침 6시, 회사를 가기 위해 집 문을 나섭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매일성경 큐티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찔리고 잘 변하지 않는 저의 연약한 모습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힘을 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7시, 먼저 일어난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첫째 아들이 식탁에 앉아 큐티를 합니다. 잠에서 깬 세 살 둘째 딸도 엄마 옆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어느덧 혼자 말씀을 읽고 큐티 책의 문제를 풀어보며 짧게 기도문을 쓰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둘째는 엄마가 읽어주는 말씀에 곧잘 귀 기울이고 큐티 책에 즐겁게 색칠하는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점점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엄마가 기도할 때 작은 손을 모아 두 눈을 꼭 감았다가 ‘아멘’하는 모습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며 하루 큐티를 하지 않게 되면 며칠, 심지어 일주일도 그냥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일의 큐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짧게라도 묵상한 내용을 적어 카카오톡 방에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영아촌, 부부목장, 그리고 가족방에 매일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하루 큐티를 거르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나눈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격려하며,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시각의 묵상을 접할 때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니 큐티생활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언젠가 첫째 아이가 “왜 큐티를 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왜 매일 해야 하나요?”라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에 꼭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이번 큐티캠페인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을 위해 쓰이듯, 매일의 큐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성자: 신형준 / 연락처: 010-4388-3478